

앙상블 «고려», 생일 축하합니다

민족무용은 민족 반복이 끝났을 때, 의 성격, 경험, 문화 사람들은 시간을 자와 기질을 보여주기 신에게 투자할 수 있 때문에 가치가 있다 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사람들은 나이가 우수리스크에서 고 들어갈수록 부모님 려인 앙상블 «고려» 의 집, 어릴 적 부모 의 전신인 «모란봉» 님이 불러 주셨던 노 이 창설되었습니다. 래를 회상하게 됩니 그 이후로 무용단의 다. 민속 안에는 그 참가자는 세 세대가 민족의 영혼이 살고 교체되었습니다. 앙 있습니다. 또한 민속 상블 첫 참가자들 중 안에는 영혼에 반향 최고령자는 지금 80 을 불러일으키고 결 세가 되었습니다. 코 심장을 자극할 수 한걸음 한걸음 무 용을 배워나가는 일 없는 무엇인가가 있 은 매우 힘들었습니 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러나 모두가 는 각자의 연령대에 노력하여 극복해 왔 따라 창조를 위한 장 습니다. 앙상블은 5 소가 있습니다. 그것 월 10일 고려인문화 은 사람들의 자연적 센터에서 10주년 기념 구성요소이지만, 콘서트를 열었습 대부분은 평범한 일 니다. «고려»는 부채 상 속에서 그것을 잃 춤, 북춤, 꽃춤 등 많 어버립니다. 그리고 은 무용을 선보였습 아이들 다 자라고 니다. 앙상블 «고려» 끝없는 일상생활의 는 매년 열리는 시페



스티발 «드루즈바 나 배우는 일은 나중에 로도프»와 우수리스 시작되었습니다. 타 크시 고려인문화페 마라 바실리에브나 스티발, 제2차 연해 박, 엘레나 드미트리 에브나 리, 알렉산드 주민족콩그레스 등 연해주의 각 도시에 르 이바노비치 김이 에서 열리는 행사뿐만 앙상블 «아리랑»의 아니라, 트베리와 참가했습니다. 타쉬켄트에서 열린 페스티벌에도

앙상블의 지도자 엘레나 드미트리예 브나 리는 모든 일 은 앙상블의 주창자 중의 한 사람인 알 렉산드르 이바노비 치 김이 민요를 부 르고 싶어하는 모든 희망자들을 초청하 면서부터 시작되었 다고 회상했습니다. 단순한 한국 무용을

속된 활동은 연해주 고령인민족문화자 치회 회장인 니콜라 이 페트로비치 김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 가능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그에게



지도자인 발레리야 인노켄티예브나 김 에게 안무를 부탁했 습니다. 이렇게 고려 인문화센터에서 계

단»의 주요한 활동 가들이라는 점이 또 한 기쁜 일입니다. 앙상블 «고려»의 생일을 축하하고, 건 강하고 에너지 넘치 게 오랜 세월 계속 되기를 염원합니 다. 나이와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 다. 만일 젊어지고 자 하는 염원과 영 혼이 있다면, 삶이 계속되는 날까지 춤추고 노래를 불 러야만 합니다. 그 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

분의 노력과 열정 그 리고 삶을 즐기는 태 도에 대해 감사를 드 립니다! 따찌아나 강

고려신문

한글판의 편집인: 김 발레리야
번역과 감수: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 구원 김중헌, 윤상원
기자과 디자인: 김 이리나

학생들이 한국어로 얘기한다

연해주 14개 교육기관에서 2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지역 한국문화 페스티벌 «손을 잡자, 친구들이여!»가 우수리스크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콩쿨은 매년 진행된다. 그리고 수상자들은 자동적으로 다음 페스티벌의 조직자가 된다.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장교회관에 모여 들었다.

시립학교 «29호 김나지야» 외국어학부장인 한국어 교사 스베틀라나 세르게예브나키레예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페스티벌의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우리 이웃나라의 전통과 관

습을 알게 하고, 한국어 배워야 한다는 새로운 교육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경연대회의 전통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처음 페스티벌은 시에서 주최하였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지역 단위로 성장하였다. 지금 우수리스크에서는 3개의 시립학교 - 133, 29, 25 학교 -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도 소모임과 선택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연해주의 수도(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7개팀이 페스티벌

위원석에는 매우 다양한 부분의 내용이 주어졌다: 민족무용과 K-POP, 민요와 현대음악, 이야기와 시 낭송(한국어로!). 동시에 장교회관 로비에서는 «한국 만화영화»를 주제로 한 그림 경연이 개최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여러 기준에 따라 참가자들을 평가했습니다: 연주자의 기교, 예술성, 내용의 수준» «고려신문»의 기자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연해주지역문화학교 팝-재즈 보컬 교사이고 고려인문화센터 교사인 옥산나 김은 말했다. 이에 따라 무용분야에서는 민속무용이 현대무용보다 더 높게 평

가받았다. 그리고 낭송 분야에서는 이야기낭송이 시낭송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금 연해주의 수도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도시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시금 연해주의 수도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도시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2015년에는 시립학교 «우수리스크 29호 김나지야» 팀이 대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5년에는 시립학교 «우수리스크 29호 김나지야» 팀이 대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습을 알게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제2 외국어를 받

습을 알게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제2 외국어를 받

습을 알게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제2 외국어를 받

습을 알게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제2 외국어를 받

습을 알게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제2 외국어를 받

습을 알게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제2 외국어를 받

습을 알게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제2 외국어를 받

습을 알게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제2 외국어를 받



이다 김

노래처럼 «눈물 속에 담긴 기쁨»



대조국전쟁 승리 71주년을 기념하여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산하 청년단체 «후대»의 활동가들은 우수리스크시의 노인들과 병자들을 위한 요양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개최자들은

노래와 춤으로 요양소 사람들을 위로했고, 퀴즈대회를 열고, 또한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연해주의 대조국전쟁 영웅들을 기렸다. 행사의 가장 젊은 참가자인 송 아나톨리는

«붉은 말»과 «녹색 꽃의 평화»라는 아름다운 노래 2곡을 불러 청중들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앙상블 «아리랑»은 2편의 우아한 춤인 «비둘기춤»과 «부채춤»을 추었다. 행사의 피날레는 «멜로디에 맞춰» 노는 것으로, 관객들은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던 음악에 맞춰 재미있게 놀았다. 행사는 소비에트 노래들을 메들리로 함께 부르면서 축제 분위기로 끝났다.

요양소 직원 타마라 미하일로브나 그리보프스카야는 이 흥미진진한 행사의 주최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특히 무용가들에게 주목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아주 좋았는데, 특히 춤이 좋았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아름답고 재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은 운명에 무관심하지 않은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일들도 성공하기를 기원했다. 블라디미르 강



전인수의 지상낙원

나는 전 블라디미르와 류보피 부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의 대가족 이야기는 나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곧 93세가 되는 그의 아버지 전인수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다. 우리의 식사가 계속될수록 흥미는 더욱 커졌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얘기를 옮겨주고자 한다. 이 얘기는 가족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5개의 방과 넓은 주방이 있는 큰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교육 관련 변호사인 장남 빅토르와 영어를 가르치는 그의 아내 릴라가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출산휴가를 받아 어린 아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빅토르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더 있습니다. 아나는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으며, 보바는 아침마다 유치원에 갑니다. 집에는 나와 나의 아내, 릴라와 아나 그리고 나의 부모님인 전인수와 소피야 니키로로브나 양이 하루 종일 남아 있습니다. 9명으로 이루어진 우리 대가족 중에 단지 빅토르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우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우 신중한

성격인 부모님은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증손자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냉장고 옆에 앉아 계셨고, 야나가 케피르를 실수로 증조부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어린 아나를 잘 달래면서 키우고, 아이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자신의 두 딸인 알료샤와 나제즈다에 대해 블라디미르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다. 그들이 분가해서 자신과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알료샤는 블라디보스트르크에, 나제즈다는나호드카에 살고 있다. 둘 모두 결혼했고, 아이들이 있다.

나는 그의 부모님에 대해 흥미가 커졌다. 블라디미르는 그들에 대해 얘기를 계속했다.

«부모님에게는 3명의 자식이 생존해 있습니다. 장남은 바체슬라프이고, 막내는 베네라입니다. 나는 둘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에게 근면하게 일하

는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교육을 받았습니 다. 기획부서의 책임자로 평생을 일했습니다. 연금을 받게 된 이후에도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으며, 여가시간에는 채소 농사를 지었고, 포

도를 재배했으며, 꿀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전기톱으로 고기다지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이올린을 만 들어 연주했고, 그 후에는 만돌린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상냥하고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의 아내 류바가 남편의 생각을 보충했다:

«약간의 언쟁을 자제하고 의견이 불일치할 때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자로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블라디미르가 계속했다:

«우리 가족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 계십니다. 고려인들은 노인들의 얘기에 순종합니다. 부엌에는 한 명의 주부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족에는 2명이 있습니다. 류바와 릴라. 그들이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들을 잘 해냅니다. 아버지는 채식을 하시고, 빅토르는 닭과 넙치와 청어를 먹지 않습니다. 야나는 샐러드를 제외하고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취향을 맞추어야 하지만, 모두들 만족해 합니다. 빅토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19시 이후에 모든 가족들이 저녁식사를 위해 식탁 위에 둘러앉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모두들 각자의 취향의 맞추어서 자유롭게 식사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삶은 어땠습니까?» 나는 블

라디미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그에게 물어보시지요» 그가 답했다.

블라디미르는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그렇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나는 그의 부모님과 이 화목한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녀가 왜 나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16살의 한 집으로 방문해 달라는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블라

디미르가 대문을 열어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아시아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큰 개가 우리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여기 넓은 거실에서 가족들과 만났다. 블라디미르의 부모님이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했다. 아버지 전인수는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보다 신중하고 보다 말이 적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남편이 말하는 바에 동의한다는 표시가 나타났다.

사랑과 행복에 대한 아버지의 얘기는 다음과 같다:

«나는 소피야가 14살 때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연해주 핫산군의 이웃 마을에 살았습니다. 1937년 우리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당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주민들은 한 콜호즈로 모여 살았습니다. 나는 들판에서 그녀를 발견했고, 그녀의 근면성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왜 나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16살의 한 집으로 방문해 달라는 초대

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가 체포되었을 때, 머리가 하얗고, 나의 아버지가 체포되었을 때, 완전히 백발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우리 4남매를 키웠고, 소피야의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6남매를 키웠습니다. 두 분 어머니들은 친하게 지냈고, 우리의 사랑을 격려하였습니다.

전쟁 시기에 나는 소피야와 헤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9학년이었습니다. 우리 학급에서 18살이 된 학생은 단지 4명이었고, 우리는 시험을 마친 후 곧바로 약간의 옷가지와 음식이 든 가방을 들고 전쟁위원회로 인계되었습니다.

다음 4 페이지

전인수의 지상낙원

우리는 공화국 징집소로 보내졌습니다. 매일 아침 호출당했습니다. 고려인들이 실수로 인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타이 타이가의 별목 소로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1946년에야 나는 2달간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돌아오라. 땅을 주겠다» 나는 여권, 병사증, 통행권과 배급권을 받았습니 나는 13일 동안 화물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들판에서 짚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계속 없었습니다. 여기에 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소피야가 없는 집안 곳곳을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벌써 90살입니다. 채소를 심고 닭과 개에게 모이를 주는 모든 일은 소피야의 일입니다.» 나는 소피야 니키포로브나에게 그녀도 전인수를 그토록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젊음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말을 멈추더니, 계속

했습니다: «나는 그의 아름다움과 친절함과 근면성과 온유함을 사랑합니다.» 나는 전인수를 바라보고 생각했다. «소피야 니키포로브나는 나의 내 가족에게서 불화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불화가 있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모두들 하나처럼 사랑합니다. 아뉴타 말해보렴...» 그는 블라디미르의 품 안에서 웃고있는 8달 짜리 아기에게 눈길을 돌렸다. «나는 장수를 위해서 기쁨과 사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인수는 그의 생각을 계속 전했다.

우리 가족 그는 소피야를 부드럽게 쳐다보며 손을 얹어줬습니까? 이 천국은 천 년 동안 계속 될 것입니다. 모두들 우리처럼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5월 6일 전인수는 그의 93세 생일을 맞았다. 나는 그의 모든 아이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손님으로 그의 집에 가까이 머물 수 있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전인수와 그의 사랑하는 소피야의 지상낙원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원한다.

닐라 자도로르나야가 대답을 기록

툼스크시에서 제7회 아마추어 예술단과 연주자들의 페스티벌인 «새 이름»



가즈 톼스크»가 주최하는 주요 가스파이프라인 문화센터 «아방가르드» 무대에서 3일동안 경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심사위원으로는 러시아의 이름있는 무용가와 음악가들인 인민예술가들이 위촉되었다.

«새 이름» 제 7회 페스티벌에는 러시아 14개 지역에서 온 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옴스크에서 사할린과 캄차트카에 이르는 시베리아와 극동 주민들을 대표하였다. «새 이름» 페스티벌의 첫 무대는 네룬그라, 알단, 센스크 그리고 올록민스크에서 온 야쿠즈 대표단이 장식하였다. 이 도시들은 주요 가스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시베리아의 힘» 덕분에 하나로 통합되어 향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업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3일 동안 관객들은 133개 참가팀을 만났다. 19개 부문에서 경연이 이루어졌다. 보컬과 기악 앙상블, 성악, 민속음악, 경연악, 민속음악, 민속음악, 민속무용, 스포츠무용, 경연무용, 경연-서커스 장르. 앙상블과 솔로 참가자들이 평가되었다. 수상자는 세 그룹에서 결정되었다. «민속» 부문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민속» 부문에서 연해주 고려인민족 문화자치회 산하 «복» 팀이 1위를 차지했다.

«나는 당신들이 일하는 시간이 이외에도 예술을 할 수 있다면, 업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가즈프롬 트란스가즈 톼스크»사의 사장 아나톨리 티토프하고 싶습니다. 만일 사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톼스크시에서 제7회 아마추어 예술단과 연주자들의 페스티벌인 «새 이름»이 개최되었다. 행사는 «가즈프롬 트란스